

축산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 집행허술

92~98년 7년간 5조5천억원중 1조원 줄여

정부는 42조 및 15조 농특세 투자계획을 통해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축산구조개선사업에 5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입될 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42조 및 15조 농특세 투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투자하고 남은 잔여액은 9조3천억원 정도인데 축산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잔여액이 전체 예산규모의 20%에 달하는 1조8천8백39억원으로 13개 투자항목중 실제 자금 투자가 가장 부진한 실정이다.

세 투자사업가운데 축산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가 가장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농림부가 매년 전체 투자예산 중 8% 만을 축산구조개선사업에 배정, 내년에 당초배정된 금액을 다 쓰려면 올해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어떻게 내년 한해동안 이렇게 많은 자금이 배정될 수 있겠냐"며 정부 투자계획의 모순성을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축산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자

금 배정은 한우산업에 매년 3천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나 한우사육마리수 과잉 등 후유증이 발생, 당초 계획만큼 투자하지 못했다"며 "내년 예산규모도 올해와 비슷

벌꿀·인삼제품등 건강보조식품으로 오인받아 이미지 피해 크다 건강보조식품업계 대책마련 촉구

사전광고 심의를 받고있는 건강보조식품업계는 미분류제품과 건강식품의 소비자 피해사태까지 건강보조식품으로 발표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조식품업계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28개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통합된 이후 벌꿀, 인삼제품, 구기자 등 건강식품과 여타 품목군에 속하지 않은 제품을 건강보조식품군으로 오인 품질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업종 이미지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협회를 통해 영업자 및 판매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에다 광고사전심의 등 제도보완이 이뤄지면서 신고건수가 종전 19%이던 것이 11%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건강식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건강식품 신고건수 9천5백21건 가운데 건강보조식품은 19%인 1천8백28건이며, 일반 건강식품 4백10건(5%), 품목비분류제품은 76%인 7천2백83건이나 집계되고 있음에도 모두가 건강보조식품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된 고발건수는

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당초 투자계획보다 실제 자금집행규모가 약 1조원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13개 항목별 투자 잔여액을 살펴보면 축산구조개선 1조8천8백39억원, 생산기반정비 1조7천7백23억원, 어업구조개선 7천2백12억원, 유통개선 6천6백6억원, 농업기계화 7천95억원, 영농규모화 5천3백59억원, 정예인력육성 4천7백억원 등이다. <농수축산신문 5/17>

모두 3천2백17건인데 이중 품목미분류된 제품이 87%인 2천7백86건이었으며, 건강보조식품은 11%에 지나지 않는 3백57건이며, 건강식품은 74건으로 2%임에도 발표되는 내용은 모두 건강보조식품으로 둔갑되

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스테비오사이드 금지안한다

재경원 주세법개정안 백지화 천연꿀을 소주첨가물로 쓰기 시작한 동기가 됐던 「스테비오사이드」의 인체 유해론에 따른 주세법 개정안이 철회됨으로써 스테비오사이드는 앞으로도 계속 소주첨가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소주첨가물질로서 인체 유해 여부를 두고 논쟁이 빚어졌던 것을 그 이유로 재정경제원은 지난 4월 8일 소주첨가물질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입법에 고했던 주세법개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백지화 하기로 한 것.

재경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 이후 스테비오사이드의 유해성을 입증, 사용을 금지하라는 의견이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97년도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8,526명 선정

농림부는 '97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대상자 8,526명을 선정, 발표하였다.

분야별로는 일반경종 농업분야 3,860명(45.3%), 축산분야 4,666명(54.7%)이며, 학력별 분포는 고졸자가 4,898명(57.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졸자(전문대 포함)가 941명(11.0%)에 달해 고학력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농업계학교 졸업자가 2,012명(23.6%)으로 농업부분도 전문지식을 가진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성별로는 여성 후계자가 823명(9.7%)으로 여성의 점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95년말 현재 여성비율 4.7%)농업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난 '81년부터 추진하여 '96년까지 88,643명을 선정,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 선정된 8,526

6명을 포함하면 97,169명이 된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신청대상자는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영농종사자(등록연령 : 30세이하)로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40세 미만인 자.

▲생산자단체 등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하는 40세 미만의 자로서

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정한다. (어업인후계자는 '97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육성)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20~50백만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게 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후계자는 해외연수,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및 전업농 선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농림부 농촌인력과, 5/3>

재경원 수입농산물 관세 감축

「국내농업 붕괴 좌초」 강력반발

재정경제원이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상당치(TE)를 대폭 내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업 붕괴를 우려하는 농업계 생산자단체·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위장·편법등 농산물 수입법률, 수입·가공업체의 부담 등 농산물의 비합리성 관세체계의 이유를 들어 국내 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 가운데 고율의 관세상당치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 이를 크게 낮추거나 전혀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4월호 8면 참조)재경원이 앞장선 이 움직임은 수입농산물의 마지막 방패막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렛대 터트릴 자세고 이 방패막은 통상압력에 의해서라기 보다 우리 스스로 독을 허물어 뜨리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지적이다.

UR협상-WTO 가입이래 국

내 농산물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관세상당치」라는 관세조정 무기였다. 수입농산물 값이 국내값에 비해 싸서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 해당품목에 대해 국내외의 가격차액을 관세형태로 가급적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였다.

현재 가격경쟁이 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상당치는 90~6백80%에 달한다(천연꿀은 97년 현재 241.9%). 국내 생산기반이 약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폐지할 경우 수입농산물은 5~40%(천연꿀은 20%)의 낮은 기본관세를 물고 활개칠 수 있게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관세상당치 부과는 국내 농업의 유일한 보호수단이 돼 왔다」면서 「이의 인하·폐지는 곧 농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검토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

“벌꿀전문 생산자단체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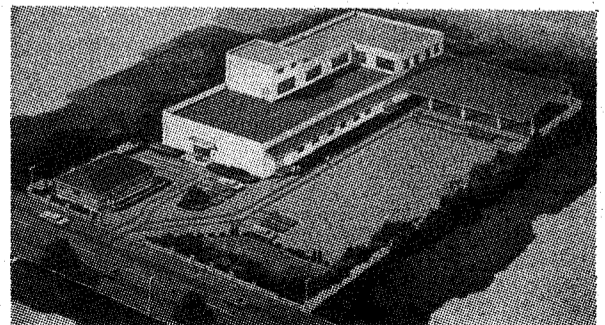
국내 최초 벌꿀도매시장 본격 진출

<문의처>
032-816-2741~3

- 모든 농축산물은 도매시장이 있는데 벌꿀도매시장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다 국내 최초로 위탁물건을 팔아주는 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 전국 각지에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생산한 벌꿀을 한 곳에 보관하여 탄소동위원소 검사장비 및 소분에 필요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벌꿀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에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1,000여드림 이상의 꿀을 확보하여 초롱 및 드럼꿀 공급과 농축 및 소분포장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탄소동위원소 측정으로 -23 이하로 통과한 순수한 벌꿀만 수매·비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수분 20%이하의 벌꿀을 다량 확보하여 공급할 계획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취급품목 =

■ 초롱꿀 ■ 드럼꿀 ■ 기타농산물 ■ 봉기구일체



한국양봉협동조합 인천공장전경

한국양봉축산업협동조합

본사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70-61 ☎(02)231-9856~9 / 공장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88-15 118블럭5롯데 ☎(032)816-2741~3